



REVIVE ISRAEL

11월 13일 2015

적그리스도의 영과의 싸움

다니엘 저스터



...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 (요일 4:2-3)

1세기 동안 성육신(예수아께서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지라는)을 부인하는 움직임들이 커졌습니다. 이런 부인에는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분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분의 완전한 성육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균형과 관계 가운데 이 교리들을 지키는 것이 우리 신앙의 근본입니다. 메시아닉 운동은, 예수아의 사역과 그분의 죽음과 부활 안에 있는 능력 있는 표적과 기사들에 근거하고, 마침내는 이스라엘 안에서와 이스라엘 너머에서의 사도들의 사역 안에 나타난 놀라운 표적과 기사들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큰 증거를

목격한 사람들은 예수아의 주되심과 복음의 메시지를 거절할 변명거리가 없었습니다.

거절의 결과

복음이 힘 있게 들어오고 성령님께서 확신을 주셨음에도 여전히 거절이 있으면 성령을 훼방하는 죄가 자리를 잡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은, 복음 증거가 있고 그리하여 그 복음을 받아들이거나 거절할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 안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 거절만이 적그리스도의 영에 권능을 부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아를 영접할 기회가 있었으나 거절한 개인과 민족은 마귀의 교리와 그 교리가 추구하는 것에 넘겨집니다.

“정치적으로 옳지” 않지만, 우리는, 1세기 유대인들 대다수와 리더십이 복음을 거절한 그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에게 자신들을 열어준 것이라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명백하게 성육신을 부인하며, 예수아께서 결코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고 말하는 이슬람은, 예수아께서 선지자라는 것을 인정하기는 해도, 그 추종자들을 적그리스도의 영에 종이 되게 합니다. 이 적그리스도의 영은 언제나 그리스도의 몸을 핍박하기를 도모합니다.

한 민족이 이 영에 묶이게 될 때에도, 그들은 여전히 진리에 대한 상당한 지식도 있고, 문화적 가치를 생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적그리스도의 영으로부터

터의 구출을 요구합니다. 우리 민족에 대해 말하자면, 1세기의 집단적 거절에서부터 아주 많이 돌이키기는 했어도, 우리는 이들이 이 영향력으로부터 구출되는 것을 볼 필요가 있음을 말해야만 합니다.

미래를 위한 열쇠

더 나아가, 우리는 이슬람 안에서, 모하메드가 신약의 계시에 대해 행한 것에 근거를 둔, 전 세계적 차원의 적그리스도의 영의 힘을 봅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 미래에 대한 열쇠는, 부흥과 복음의 능력이 사람들을 이 영으로부터 구출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평화가 오는 것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평화의 왕을 영접하고 그분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텔 아비브의 커피 하우스

론 칸토르



오랫동안 제 마음에는 저희 오래된 건물을 새로 현대적인 커피 하우스로 개조하여 콘서트도 열고 젊은이들의 모임도 열고 매

주 기도모임 등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지난 1월에 어떤 분이 우리가 3만 5천 달러를 모으면, 본인이 나머지 3만5천 달러를 헌금하겠다고 제안하셨습니다. 6월 중순에 그 목표가 달성되었습니다! 저희는 8월에 리노베이션을 시작했는데, 대부분의 건축 프로젝트가 그렇듯이, 예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아무튼, 저희는 지난주에 리본 커팅을 했습니다!

아직도 한 달 가량 인테리어 작업(소파, 테이블, 에스프레소 대, 그림 등)을 더 해야 하지만, 큰 공사는 끝났습니다. 저희는 조만간 정기적인 아웃리치 콘서트를 시작할 것입니다. 저희는 벌써 현지 음악가들의 목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의 비전은 젊은이들과 다른 이들이 친구들을 데려올 수 있는 장소,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으로 예슈아처럼 살고 사랑할 수 있는 위협적이지 않은 환경을 갖는 것입니다. 복음은 더 퍼져나갈 것입니다! 이 커피 하우스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기를 바라시는 모든 것이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성경적 청지기정신 (2부)



켄사스시티 국제기도의 집의 랍 파커 목사

님이, 예수아께서 최고의 모범이신,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는 청지기정신, 믿는 이의 관리 역할, 종으로서의 우리의 부르심에 대해 강의하는 동영상입니다.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영어)

국제 아글로우 컨퍼런스

할리 알라스



지난주 리바이브 이스라엘 북미팀은 인디애나 주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열린 국제 아글로우 컨퍼런스에 참석했습니다. 이곳에 아세르 목사님이, 이전에 무슬림이었다가 믿는 이가 된, 알 하얏 텔레비전 디렉터인 그 친구 하룬 이브라힘과 함께, 주강사 중 한 분으로 초청받았습니다. 국제 아글로우 제인 한센 호잇을 총회장으로 하여, 170여 개 국에서 온 남녀로 이루어진 단체입니다. 컨퍼런스의 제목은 “하나되어 – 이와 같은 때를 위하여”였습니다.

각 시간들의 내용은 풍부했는데요, 경배와, 마음을 찌르고 나라들을 흔드는 선포로 가득했습니다. 이 행사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기 위해, 세 중요한 리더들을 언약적 동역자 정신으로, 메시아의 몸 안에서 연합되게 했는데요, 한 명은 170여 나라에서 온 크리스천들을 대표했고, 한 명은 수백만 아랍인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나가는 이를 대표했고, 또 한 명은 메시아닉 유대인 남은 자들과 예루살렘 으로부터 나오는 사도적 권위의 회복을 대표했습니다.

무슬림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오는 간증과 탁월한 강의와 능력 나눠줌 의 에도, 이 주말 행사에는 진정한 겸손 가운데 서로를 섬긴다는 의미의 그림을 그린 지도자들 사이에 서로에 대한 복종과 경의를 표하는 예언적 행동들도 수놓아졌습니다. 저에게 인상적이었던 것 중 하나는 아셰르 목사님이 전 세계 믿는 이들의 몸 에 대해 축복의 말씀을 하고 그들이 영광 가운데 일어나 천국 복음을 땅 끝까지 가져 가는 일을 예수아의 재림 때까지 마치도록 격려한 것이었습니다. 그 반응은 압도적 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귀하 쓰시는 그릇을 통해 이 땅에서 행하고 계신 일은, 여러분 이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나 인터넷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뉴스가 아닌, 진 짜 뉴스입니다. 이것은 경외심을 일으킵니다. 이것은 강력합니다. 이것은 신부로 하 여금 유다 지파의 사자요 곧 다시 오실 왕이신!! 신랑을 맞을 준비를 시킵니다.